

‘中國 東北地域 細形銅劍文化와 韓半島’에 대한 토론문

李 陽洙(國立慶州博物館)

발표자는 중국 동북지역, 특히 요령지역에서 세형화된 동검을 요령식세형동검으로 규정하고 한국식세형동검과 분리하여 검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발표자의 논지에 동의하고 있으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것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1. 지역단위의 설정에서 한반도 서북한지역(VI)을 요령식세형동검문화에 포함하여 설정하고 있다.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한지역은 요령식세형동검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한국식세형동검이 더욱 우세한 지역이라 생각된다.

서북한지역은 요령식세형동검문화와 한국식세형동검문화가 교차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송리식으로 구분한 Va식 요령식세형동검은 동반하는 T자형 검파가 장해 서가구, 본계 상보촌M1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하다. 즉 신송리식은 윤가촌식에 후행하기 보다는 서북한지역의 지역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발표자가 생각하는 서북한지역의 성격을 좀 더 명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2. 제목은 한반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내용은 부족한 감이 있다. 토론자의 이해부족일지도 모르겠지만 발표자가 생각하는 요령식세형동검과 한국식세형동검의 관계는 어떠한지 보충설명을 바란다.

3. 결론에서 발표자는 세형동검문화가 중국 군현의 확대 설치와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획기로 연의 장수 진개의 활동, 진의 전국통일, 한의 요동군 재정립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과 요령식세형동검문화의 변화가 어떤 문화내용을 보이는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시기를 바란다.

4. 서북한지역 외에도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되는 변형요령식동검 중에는 요령식세형동검문화와 관계가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김천 문당동 목관묘에서 발견된 요령식동검의 경우도 세형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단면원형점토대토기와 동반하여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요령식세형동검과 한국식세형동검을 교차편년함에 있어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다. 발표자는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되는 변형요령식동검을 어떠한 맥락에서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